

도시경관계획을 위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에 관한 고찰

방재성* · 양병이**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Landscape Type for Urban Landscape Planning

Bang, Jae-Sung* · Yang, Byoung-E**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fundamental data for the classification of landscape type as a base for landscape planning and management practices. To do this, prior dissertations and landscape plan reports were analyzed, which presented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landscape type.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criteria for landscape type which could be usable in zoning ordinances has been suggeste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ly, in landscape analysis and assessment study based on ecological and formal aesthetic models, landscape type is classified by the character of the landscape element. Secondly, there is no logical classification of landscapetype in urban landscape planning according to mixed use of landscape type for analysis and planning. It is therefore difficult to identify the object of landscape planning, which is intimately linked with the shortage of concrete practice for landscape management.

In connection with this issu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landscape type are suggested based on utility in landscape planning. This could be divided into internal criteria and external criteria. The former are land-use,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the view object, and landscape elements while the latter are viewpoint, distance to view object, and urban form. Applying the landscape type classified by the criteria suggested in this paper, it is possible to manage an entire urban area. In addition, landscape type could be reference data for operating a zoning system.

Key Words: Land-use, Zoning, Landscape Classification, Landscape Management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경관계획의 효율적 실행수단 확보 차원에서 도시경관 유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학술지 논문과 경관계획 보고서 중 경관유형과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지구제에서 활용 가능한 도시경관 유형화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Corresponding author: Jae-Sung Bang,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82-2-888-5786, E-mail: bird97@empal.com

첫째, 분석과 평가 관점의 경관유형화 방식은 생태학적 접근과 형식미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경관요소들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경관을 유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은 분석을 위한 경관유형과 계획을 위한 경관유형의 혼용에 의해 논리적인 경관유형 분류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경관관리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제어요소와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계획 과정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을 크게 경관구성의 1차적 기준과 2차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차적 기준은 지형과 용도지역지구, 경관자원의 성격, 경관요소가 있고 2차적 기준은 경관계획 대상지 외부에서 경관을 구성하는 조망점, 조망점과 경관대상과의 거리, 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도시경관 유형화는 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며, 향후 도시경관유형을 토대로 한 용도지역지구의 운용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주제어: 토지이용, 용도지역지구, 경관분류, 경관관리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도시경관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07년 경관법의 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의 상호보완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국토계획법이 용도지역지구제에 기반하여 도시 내에 필요한 공간을 양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경관계획은 입체적 관점에서 경관과 관련된 물적, 비물적 요소들의 계획 및 관리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관계획은 총체적인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하고 광범위한 도시계획구제의 논거를 경관이라는 가치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도시계획 안에서 다른 계획들과의 폭넓은 논리구조를 형성하므로 도시계획에서 그 역할을 정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건설교통부, 2004). 이와 같은 국토계획법과 경관법의 간극은 도시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시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이 어려운 원인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행수단의 부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도시 내 경관자원의 선정 및 분류방법, 경관분석 및 경관의 질과 가치에 대한 평가방법, 경관자원들에 대한 관리방법 및 수준 등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관계획의 방법론이 일관된 체계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 가운데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경관관리 대상의 명확한 규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의 경관을 조작의 대상 즉, 계획과 관리의 대상으로 이해한다면 대상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어떤

종류의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경관관리에서 목표한 시간대와 규모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¹⁾.

도시경관의 유형화는 도시경관계획의 기반과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도시경관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행 도시계획의 주요 수단인 용도지역지구제와 연동시킨 도시경관 유형화 분류기준의 정립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경관계획과 도시계획의 간극을 줄일 수 있으며, 둘째, 경관계획의 명확한 대상과 규모를 설정할 수 있으며, 셋째, 경관계획의 구체화 및 경관개선 사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의 기반인 도시경관유형화의 객관화된 방법론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검토

일반적으로 경관유형분류와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경관을 보는 관점과 유형화의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경관의 의미 고찰 및 해석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경관을 유형화하는 방식 둘째, 경관분석 및 평가의 관점에서 경관을 유형화하여 접근하는 방식 셋째, 경관관리 및 계획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류하는 방식 등이 있다.

경관유형화 연구는 주로 경관분석 및 평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크게 자연지역에 대한 경관유형과 도시지역에 대한 경관유형으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1) 자연지역 경관유형화 관련 연구

자연지역에 대한 경관유형 분류 관련 연구들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산림 및 자연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가 갖는 경관적 특성과 토지이용, 지형을 통해 경관을 유형화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임승빈과 안동만(1996)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경관평가에서 토지이용에 근거한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 분석을 통하여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경관관리도를 작성하여 등급 지역별 경관관리지침을 제시하였고, 서주환과 윤재남(1999)은 토지이용, 식생, 지형의 굴곡, 관광자원의 밀도, 시설지의 평균 면적, 관광자원의 특이성, 해안지형의 특이성과 피시빈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5가지 유형의 경관관리 구역도를 제작하여 각 유형별 지역의 특성과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봉문 등(2002)은 경관자원요소나 형태에 따라 경관을 유형화하여 경관문제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을 현황조사 후 경관관리를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 보전 모형을 정립하였다. 홍승길 등(2006)은 우리나라 농촌경관의 공간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383개 리와 동의 토지이용현황과 지형조건을 GIS기법으로 분석하여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농촌, 자연, 도시형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공간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산악지역, 산촌마을지역, 개발 산촌마을지역, 평야지 농업지역, 개발평야지 마을지역, 집촌지역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임승빈 등(2007)은 토지피복분류도, 지형도를 활용하여 자연 및 농촌경관유형 맵핑을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 자연 및 농촌경관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관유형도를 작성하였다. Barbyn(1996)은 GIS를 활용하여 식생, 토지이용, 물, 지형에 따라 경관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경관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경관관리 지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Swanwick(2002)는 경관보전, 관리 및 향상을 목적으로 경관특성에 기초한 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용을 통해 경관유형을 설명하였다. 경관유형을 자연적 요소와 문화, 사회적 요소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분류기준으로 지질, 지형, 토양, 토지피복, 식생, 토지이용, 거주 형태, 개방성, 시간성 등을 제시하였다.

2) 도시지역 경관유형화 관련 연구

도시지역의 경관유형 관련 연구는 경관분석과 평가관점의 경관유형 연구와 도시경관계획 수립과 관련된 경관유형 분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의 경관특성과 경관유형과의 관점에서 연구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갑수(2003)는 수치표고모델,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분류 데이터를 이용한 토지이용 CG화상과 토지피복 CG화상의 작성과 가시권 분석을 통해 광역적 도시경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경관유형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황재훈(2003)은 청주시 경관유형별 이미지 구조 특성과 이미지 속성을 분석하여 경관유형별 이미지를 평가하였다. 이형복 등(2004)은 도시 용도지역과 지형의 관계를 고찰하고 저층지역의 가로경관, 상업·업무지역의

가로경관, 저층주거 중심의 전망경관, 오픈스페이스로부터의 전망경관, 고밀 주택지경관의 5가지 특징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김대현 등(2005)은 도시의 토지이용형태로 경관을 구분한 후, 시각적 평가를 통해 경관을 유형화하였다. 녹지량과 다양성의 정도에 따라 5가지 경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재형 등(2005)은 경관의 구성요소를 찾아보고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술한 연구들이 주로 경관분석과 평가 관점의 경관유형화 연구라면 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들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정태일과 오덕성(2003)은 40여개의 경관관련법 제도와 3개 시도의 경관계획 속에 나타난 경관유형 또는 제어요소별 특성을 조사하고 법, 제도상의 경관유형과 도시계획조례 및 경관관련 계획상의 경관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김용수와 박찬용(2006)은 경관계획에서 적용 가능한 지표와 지표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도시의 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지표유형, 경관유형, 경관평가방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유리 등(2007)은 경관계획에서 경관유형과 경관제어요소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경관유형과 제어요소, 경관권역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기존 경관유형 분류 연구들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화의 방식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들의 분석을 통해 경관을 유형화하는 방식(임승빈과 안동만, 1996; 서주환과 윤재남, 1999; 최봉문 등, 2002; Barbyn, 1996; Swanwick, 2002; 한갑수, 2003; 유재형 등, 2005)과 둘째, 토지이용이나 공간유형에 기반하여 경관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경관의 특성을 도출하는 방식(홍승길 등, 2006; 임승빈 등, 2007; 황재훈, 2003; 이형복, 2004; 김대현 등, 2005)이라고 할 수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경관계획의 효율적 실행수단의 확보 차원에서 도시경관 유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관을 유형화하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변화해 온 경관유형 방식과 분류기준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지구제에서 가능한 경관유형 분류방안의 기초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학술지 논문과 경관계획 보고서 중 경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15편의 경관계획 보고서 분석을 토대로 현행 용도지역지구제에서 활용 가능한 도시경관 유형화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첫째, 해석적 관점과 분석적 관점의 도시경관유형 분류 방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경관유형화의 방법과 그 흐름을 분석하고, 유형구분을 위해 고려할 요소들을 파악한다.



그림 1. 연구과정

둘째, 국내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 분류 방식들에 대해 고찰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행적 수단 확보를 위한 경관유형화의 기준을 도출한다.

셋째, 현행 국토계획법과 경관계획 사이의 간극을 조절하기 위해 용도지역지구제와 경관유형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도시경관유형 분류기준을 제시한다.

III. 연구결과

1. 경관의 의미, 해석적 관점의 경관분류

경관을 유형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관에 대한 인지 및 이해에 기반한다. 따라서 경관에 대한 접근방식과 해석방식에 따라 경관의 의미나 정의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의 경관분류는 유형화라는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경관의 의미 고찰과 해석적 관점의 분류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Meinig(1979), Norberg-Schulz(1980), 황기원(1989), 이규목(2004) 등의 연구가 있다.

Meinig(1979)는 경관과 자연, 경관과 풍경, 경관과 환경, 경관과 장소의 개념 비교를 통해 경관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황기원(1989)은 경관의 다의성에 입각하여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온 경관 관련 개념을 비교 분석하였고, 경관의 개념에 대해 한정된 토지로서의 경관, 경치로서의 경관, 조경으로서의 경관, 지역으로서의 경관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Norberg-Schulz(1980)는 현상학적, 실존적 관점에서 낭만적 경관, 우주적 경관, 고전적 경관, 복합적 경관으로 경관을 분류하였다.

또한, 이규목(2004)은 경관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시각적 접근, 인지적 접근, 전달매체적 접근, 장소창조적 접근으로 구분하였고, Meinig(1979)는 해석상의 관점에서 경관을 자연, 거주

표 1. 경관의 의미 해석적 관점의 경관

분류의 관점	경관의 분류
경관의 의미	자연, 풍경, 환경, 장소
실존적 관점	낭만적 경관, 우주적 경관, 고전적 경관, 복합적 경관
경관의 의미	한정된 토지, 경치, 조경, 지역
경관의 이해	시각적 접근, 인지적 접근, 전달매체적 접근, 장소창조적 접근
경관해석적 관점	자연(Nature), 거주지(Habitat), 인공물(Artifact), 체계(System), 문제(Problem), 재화(Wealth), 이데올로기(Ideology), 역사(History), 장소(Place), 미(Aesthetic)

자료: Meinig, 1979: 2-3; Norberg-Schulz, 1980: 5-23; 황기원, 1989:58-65; 이규목, 2004: 127-137; Meinig, 1979: 34-47.

지, 인공물, 체계, 문제, 재화, 이데올로기, 역사, 장소, 미로 분류하였다.

2. 경관분석 및 평가 관점의 경관유형

경관평가를 위한 분석적 관점의 경관유형화는 경관요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관을 유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분석의 방법에 따라 경관유형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경관분석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임승빈, 1991), 첫째,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한 이해와 해석을 목표로 하는 경관분석과 둘째, 경관의 특성을 파악하여 다양한 경관의 특성을 분류하고 체계화시키는 의미의 경관분석으로서 경관평가를 위한 경관분석, 셋째,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경관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임승빈(1991)은 Arther *et al.*(1977), Zube *et al.*(1982), Daniel and Vining(1983)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경관분석방법을 생태학적 접근, 형식미학적 접근, 정신물리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기호학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관분석 방법들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도시경관의 특성과 경관유형을 고찰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생태학적 접근과 형식미학적 접근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생태학적 접근은 토지이용, 생태적 인자, 물리적 인자, 인간이용 인자 등을, 형식미학적 접근은 물리적 형식이 미치는 시각적 효과를 분석 혹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생태학적 접근과 형식미학적 접근 방식에 기반하여 경관요소, 경관특성과 경관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주요 연구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과 경관분류기준을 고찰하였다.

이형복 등(2004)의 연구에서는 도시의 토지이용에 기반한 시각적 경관평가를 통해 도시경관을 유형화하였다. 경관분석을 토대로 5가지 특징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과 용도지역, 지형 조건과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경관유형이 토지이용방

표 2. 경관분석방법

경관분석방식	주요 내용 및 특성	경관분류 기준
생태학적 접근	- 인간생태학적 접근, 경관생태학적 접근, 도시생태학적 접근 - 생태적 건전성	- 토지이용, 생태적 인자 물리적 인자, 인간이용 인자
형식미학적 접근	- 자연경관에서의 경관의 훼손가능성 - 토지이용과 시각적 영향 - 경관회랑, 경관구역, 경관통계점 - 스카이라인 - 표준전망(standard view)	- 경관의 시각적 특성 ²⁾
정신물리학적 접근	- 선호도, 만족도, 경관미	
심리학적 접근	- 선호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 - 인지도, 이미지(린치)	
기호학적 접근	- 사회적, 문화적 의미 - 기호체계적 접근, 상징적 접근, 상황중심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	- 존재적 의미, 본질	- 장소성 - 슬츠 실존적 경관분류
경제학적 접근	- 금전적 가치	

자료: 임승빈, 1991: 19, 21-37, 71-88. 필자 제작성

식과 지형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황재훈(2003)의 연구에서는 청주시의 경관유형을 산지경관, 하천경관, 주거지경관, 상업업무지경관, 공원녹지경관, 가로경관, 역사경관으로 분류하고, 경관유형별 이미지를 평가하였다. 이는 시각적 관점과 토지이용적 관점의 복합적 활용에 기반한 경관유형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유재형 등(2005)의 연구에서는 서울 강북 도심부의 경관 구성요소를 토대로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였다. 경관의 기본적 구성요소는 벽, 바다, 배경, 시점 주변으로 시각적 구성요소들이 경관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구성요소로서 이것들의 관계특성에 따라 경관을 유형화 하였다.

한갑수(2003)의 연구에서는 춘천시를 대상으로 수치표고모델,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분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토지이용 CG화상과 토지피복 CG화상의 작성과 가시권분석을 통해 광역적 도시경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시점장을 선정하고 토지이용 데이터와 DEM을 이용한 토지이용 CG화상의 작성을 통해 경관을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의 녹지 감소를 파악하고 경관상 보전지역을 추출하였다. 광역적인 도시 지역에서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경관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김대현 등(2005)의 연구에서는 도시의 토지이용형태 즉, 용도지역별로 경관을 구분한 후, 시각적 평가를 통한 경관 유형

표 3. 경관분석적 관점의 도시경관 유형과 분류기준

연구	경관요소 및 특성	경관유형	경관유형 분류기준
이형복 등 (2004)	자연요소건물, 인공구조물	- 저층지역의 가로경관 - 상업, 업무지역의 가로경관 - 저층·주거 중심의 전망경관 - 오픈스페이스로부터의 전망경관 - 고밀 주택지경관	토지이용 지형 조망점 시각적 특성
황재훈 (2003)	건물, 도로, 공공공간, 가로시설물, 광고물	- 주거지경관, 가로경관 - 산지경관, 하천경관 - 공원녹지경관, 상업업무지경관 - 역사경관	토지이용 시각적 특성
유재형 등 (2005)	벽, 바다, 배경, 시점주변	- 돌출산발형, 창틀조점형, 연속산재형, 위압조점형, 개방형	조망점 시각적 특성
한갑수 (2003)	녹지 시가지	- 개발제한구역 경관 - 녹지경관 - 시가지, 수역경관	토지이용, 지형, 시각적 특성, 조망점
김대현 등 (2005)	녹지 다양성	- 녹지와 다양성의 정도에 따른 5가지 경관유형	토지이용, 시각적 특성

화를 시도하였다. 도시경관의 유형과 특성의 관계 파악을 위한 연구로서,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경관을 유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도시의 용도지역에 따라 경관을 구분하고, 각 용도지역별 경관을 촬영하여 경관평가를 실시하였다. 도시 경관의 특성을 녹지와 다양성의 측면에서 분류하고 2가지 또는 5가지 경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표 3 참조).

도시경관분석 및 평가관점의 연구들은 경관특성 파악을 전제로 경관을 유형화한다는 점에서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계획의 경관유형화 방안과는 다른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관의 요소나 경관의 특성을 경관의 유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특징이며, 경관요소를 산, 강, 녹지와 같은 자연요소와 건물, 구조물, 가로시설물, 광고물 등 인공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경관유형의 분류기준은 토지이용, 지형, 시각적 특성, 조망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경관의 특성을 도로, 건축물, 인공적인 요소가 도시의 자연적 지형 위에 입지하여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공적인 요소들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제도에 의해 그 형태가 형성되며,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기본요소로서 그 변화에 따라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 입지하는 지형적 특성과 이것을 약화시키는 토지이용의 세분화, 고밀화, 건축물의 고층화가 도시경관의 특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3. 도시경관계획 관점의 경관유형

도시경관계획에서 활용하는 경관유형은 경관분석적 관점의 경관유형과는 다른 양상을 띠는데,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관계획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관계획은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법으로 정리되는데(김한배, 2003), 그 하나는 유형별 계획이고, 또 다른 하나는 권역이나 지역별 계획이다. 전자는 먼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각 유형들을 설정하고, 그 유형의 경관별로 분석과 계획을 진행시켜 각기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 과정이다. 일본 고베의 경우가 이 대표적 예인데, 경관유형들인 자연지역경관, 하천축경관, 가로축경관, 공원·녹지경관, 상업·업무지역경관 등의 구분을 중심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후자의 지역별 또는 권역별 계획은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인데, 도시 전 지역을 몇 개의 동질적 경관권역으로 나누고, 각각 상대적 경관특성을 분석한 다음, 이러한 권역별로 대략적인 계획구상을 수립함으로써 전체 마스터플랜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지역적 특성과 도시규모에 따라 경관유형과 권역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관관리의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도시경관계획에서의 경관유형 분류는 일본의 도시경관계획에서 사용한 경관유형분류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 분류방법은 도쿄(東京)식과 고베(神戸)식이 대표적이다. 정리하자면 표 4와 같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3, 1994)의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연구는 우리나라 지자체 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 분류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일본의 도시경관유형 분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표 6의 경관유형분류기준과 경관유형을 보면 시점과 경관대상과의 거리(조망형, 환경형), 넓이(광역, 도시, 지구), 토지이용(공원녹지, 주거지, 상업·업무지), 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축경

표 4. 일본도시경관계획의 경관유형 분류방법

경관계획	경관유형 분류 방법	특징	경관유형
지역, 권역별 계획, 도쿄 (東京)	공간형태적 구분	점, 선, 면적인 경관자원들의 형태적 분류	- 점적경관(장소, 랜드마크) - 선적경관(산능선, 강, 도로망) - 면적경관(동질적 경관)
	지역에 의한 구분	경관의 동질성에 의한 구분	- 면적경관과 유사 - 경관권역 구분
경관유형별 계획, 고베 (神戸)	시점거리에 따른 구분	시점과 경관대상과의 거리	- 조망형경관(거시적 경관) - 환경형경관(미시적 경관)
	토지이용에 따른 구분	토지용도에 의한 구분	- 주거지경관, 상업지경관 등

표 5.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I 의 도시경관유형

경관유형 분류기준	경관유형	
시점	조망형경관, 환경형경관	
넓이	광역적경관, 도시적경관, 지구적경관	
성격	자연녹지경관	자연녹지경관, 전원취락경관
	도시축경관	하천축경관, 도로축경관
	시가지지구경관	공원녹지경관, 주택지경관, 공업지경관, 상업·업무지경관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12.

관, 시가지경관), 경관의 인공성여부(자연경관, 인공경관)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은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 조망점과 경관대상과의 거리에 의한 도시축경관의 세분화(하천축, 도로축, 조망축경관), 경관자원(역사경관), 경관요소(기타경관) 등으로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표 6과 같다.

이러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의 다양성과 비체계화는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세운 경관계획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90년대 중, 후반부터 최근까지 작성되어온 경관계획이 모두 경관법 제정 이전에 세워져 실행수단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도시경관계획 수립 분야의 연구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한계 속에서 진행된 지자체의 경관유형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³⁾.

우리나라 도시경관계획에서 사용하는 경관유형은 크게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두 가지로 구분⁴⁾되고, 자연경관은 녹지경관과 수변경관으로, 인공경관은 시가지경관, 축경관, 역사문화경관, 기타경관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표 7을 보면 도시규모나

표 6. 서울시 도시경관관리방안의 도시경관유형과 분류기준

분류기준	경관유형
조망점(시점), 경관대상과의 거리	조망형경관/환경형경관
넓이	광역적 경관/도시적 경관/지구적 경관
인공성 여부	자연경관/인공경관
지형(표고)	산지경관/구릉지경관
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	도시축경관(하천축, 도로축, 조망축)/시가지경관
경관자원	역사경관/시가지경관
토지이용	공원녹지경관/주거지경관/상업업무지경관
경관요소	기타 경관(야간경관 등)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12 ; 1994: 81, 필자 재정리

표 7. 우리나라 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

대분류	자연경관					인공경관																		
	녹지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	시가지경관					전원지	축경관			기타 경관								
	산지	구릉지	하천	해안	호소		주거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공공시설	공원녹지		개발지구	도시축	도로축	조망축	야간	색채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문제경관	건축물의관	거점	가로
1	광주(1996)	●		●		●		●						●		●	●	●						
2	춘천(1999)					●					●			●			●	●	●		●			
3	김포(1999)			●	●	●	●							●			●	●	●					
4	청주(2000)	●	●	●		●	●	●			●			●										
5	송도(2000)				●		●	●			●			●	●		●						●	
6	영월(2001)					●	●	●																
7	용인(2001)				●	●					●			●			●				●			
8	구갈(2002)			●			●	●			●						●	●						
9	울산(2001)		●	●		●	●	●			●			●		●				●				
10	가평(2002)	●	●	●		●		●						●		●	●	●						
11	대구(2002)					●	●	●	●		●	●	●	●		●	●	●	●					
12	대전(2003)	●	●		●	●		●						●	●	●	●	●	●					
13	서울(2005)	●	●	●		●		●																
14	화성(2005)	●	●	●	●	●		●																
15	송도(2005)																							●

경관계획 수립 시기에 따라 경관유형 분류에 있어 특별한 경향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으나 자연경관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녹지나 수변지역의 분포에 따라 경관유형화가 되고 있다. 대략 7~8개 정도의 경관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경관계획에서는 10개 이상의 경관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경관유형 이용 빈도를 정리한 표 8을 보면 중분류된 이용빈도수의 경우 15개의 경관계획 사례 중 시가지경관은 14개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역사문화경관, 수변경관, 기타 경관, 축경관 등이 유사한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녹지경관은 15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만 경관유형화하고 있다. 세분류와 중분류의 빈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일부 경관계획에서는 세분류 없이 경관을 유형화하기 때문이다.

시가지 경관 외에 경관계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경관유형은 역사문화경관으로 15개의 경관계획 분석사례 중 12개에서 사용하고 있다. 역사문화경관이 세분화되지는 않았으나 도시경관계획의 중요한 경관유형임을 알 수 있다. 세분류된 경관유형별 이용빈도를 보면 색채경관, 도로축경관, 하천경관, 주거지경관, 공원녹지경관, 옥외광고물경관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연경관은 녹지경관과 수변경관 등 경관자원에 의해 중분류되고, 녹지경관의 경우 표고에 의해 산지경관과 구릉지경관

으로 세분되고, 수변경관의 경우 경관자원의 특성에 따라 하천경관⁵⁾, 해안경관, 호소경관 등으로 세분된다. 일부 경관계획에서는 세분화된 경관유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공경관의 경우 역사문화경관과 같은 점적, 면적 경관자원에 의한 구분⁶⁾과 토지용도에 의한 시가지경관의 구분, 도시공간구조의 시각적인 형태적 특성에 의한 축경관, 경관요소를 경관으로 구분하는 기타 경관 등 다양한 경관유형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일부 경관계획⁷⁾에서는 시가지경관을 기성시가지, 신시가지, 시가지구역, 시가지예정구역 등 도시계획의 토지이용체계를 경관유형화하는 경우도 있고, 주거지경관을 저층, 고층, 공동주택 등 주택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⁸⁾ 등 다양한 유형분류체계가 있다. 또한, 경관유형과 경관권역, 경관관리지역 등 유형과 경관관리의 범위를 혼용하고 있는 경우⁹⁾도 있다. 우리나라 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 분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관된 경관유형 분류체계가 없다. 지자체 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은 논리적이지 못한 획일적인 나열과 선택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관자원, 특성, 경관구성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비체계적인 경관유형 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관유형이 경관관리

표 8. 우리나라 경관계획의 경관유형과 이용빈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분류 이용빈도수	중분류 이용빈도수
자연경관	녹지경관	산지경관	5	7
		구릉지경관	6	
	수변경관	하천경관	7	11
		해안경관	3	
		호소경관	1	
인공경관	시가지경관	주거지경관	7	14
		공원녹지경관	7	
		상업업무지경관	6	
		공업지경관	2	
		공공시설경관	1	
		개발지구경관	1	
	기타경관	색채경관	9	11
		옥외광고물경관	7	
		야간경관	5	
		가로시설물경관	3	
		건축물의관	2	
		문체경관	1	
		거점경관	1	
	축경관	도로축경관	8	11
조망축경관		4		
도시축경관		1		
역사문화경관	-	-	12	
전원지경관	-	-	1	

표 9. 우리나라 경관계획 분류기준과 경관유형

분류기준	경관유형
인공성 여부	자연경관, 인공경관
경관자원의 성격	녹지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지형(표고)	산지경관, 구릉지경관
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 조망점	도시축경관, 도로축경관, 조망축경관
토지이용	주거지경관, 상업업무지경관, 공원녹지경관, 공업지경관 등
경관요소	야간경관, 색채경관, 옥외광고물경관 등

나 계획의 구체적인 근거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관자원, 경관특성 등의 분석을 통해 경관을 유형화하는 방식은 국지적이거나 특정한 경관관리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큰 무리가 없으나, 도시와 같이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이며 동태적인 경관을 유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도시경관 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 분류기준을 분석, 정리하자면 표 9와 같다.

둘째, 경관유형과 경관권역이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 이는 일본도시경관계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시 내 특정지역은 경관권역이나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경관을 관리, 계획하고 다른 지역은 경관계획에서 규정한 경관유형의 일반적인 관리지침을 적용한다는 것은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관리차원에서 보았을 때 부적절한 관리방향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 전체를 경관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선별적 경관관리의 양상을 띄고 있다.

셋째, 경관유형과 경관구성요소, 경관관리방안과의 연계가 명확치 않다. 이는 경관유형의 비체계적인 구분에 기인하나, 이로 인해 경관유형이 경관제어요소나 관리방안과 연계되지 않아 경관계획 수립에 있어 효율적인 실행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경관유형에서 도시적, 지역적 특성을 찾을 수 없다. 도시에 따라 경관관리의 관심영역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경관을 유형화하는 단계에서는 모두 동일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경관유형 분류체계의 모호성과 단순성 때문인지 우리나라 도시들이 갖는 지형의 유사성과 토지 이용 방식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지자체 도시경관계획보고서 상에서 도시의 경관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4. 용도지역지구제와 연동된 경관유형화

1) 경관관리수단으로써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도시계획조례에 기반한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강도, 용도, 규모 등에 관한 실질적인 규제사항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경관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매우 활용가치가 높은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들에서 다루고 있는 경관관련 항목들은¹⁰⁾ 실행 수단의 확보 차원에서 큰 효력이 없다. 국토계획법의 경관계획 수립에서는 계획항목의 나열로 그치고, 세부계획의 대상들은 관련법들의 조례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계획자가 참고하는 수준이다.

제도의 운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용도지역지구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물의 높이 등 계량위주의 규제로 되어 있어 도시환경의 질과 경관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적, 도시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지구 체계 내에서 녹지지역,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실질적인 경관관리 수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경관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관지구, 미관지구와 같은 용도지구는 관리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상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는 용도지역·지구 체계에 속하여 근본적으로 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행위규제의 대상이 건축물에 한정되어 건축물 이외의 경관훼손에 대하여는 대처하기 힘들며, 건축물에 대해서도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와 대지안의 조경만 규제 가능하여 경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관보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체도가 경관보전 및 관리의 규제에서 취약한 수단으로 비치는 것은 경관관리 목적의 건축규제를 동반하는 토지이용규제가 대상 토지 자체의 속성에서 규제이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토지 밖의 특정 시점에서의 조망권 형성에 영향을 미칠 요인(층고, 형태 등)을 대상 토지에서 규제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¹²⁾.

그러한 측면에서 경관법은 국토계획법의 제한적 역할을 보완해 주는 법으로 그 의미와 활용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 경관법의 주요 경관관리 대상은 경관법 제8조를 보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한정되어 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에 기반하는 경관관리 및 경관계획수립은 도시 전체의 경관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외의 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관리지침이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¹³⁾.

2) 용도지역지구제와 경관유형의 활용

이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기반한 도시경관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용도지구 세분화 및 추가 선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경관유형화를 통해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활용방안, 관리방안 수립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의 경우, 용도지구를 이용한 경관관리의 방법은 주로 건축물의 높이관리에 중점을 둔 자연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경관부문계획을 수립하는 형태이다. 높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고도지구를 활용하였고, 선적 가로 미관 관리를 위해서는 미관지구를 활용하고, 면적인 경관의 유형별 관리를 위해서는 경관지구를 활용하고 특정지역의 개발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경관적 특성과 관리수단을 조합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제시된 수변경관지구와 조망경관지구의 관리방법에서는, 기존 용도지구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경관심의회 형태를 일부 도입하고 있어, 이들 경관지구는 보다 유연한 경관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경관유형을 도시 용도지역, 지구에 맞추어 접근하는 것이 국토계획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고려할 때 경관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경관의 유형에 따라 중요도 및 관리 방안을 차등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계획 제도 하에서 제어방법을 법률과 조례, 지침, 협정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5. 용도지역지구제와 연동된 경관유형 분류기준

용도지역지구제에 기반한 도시경관 유형화는 표 10과 같이 기존 도시경관계획의 경관유형과 개념적으로 상호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용도지역지구제에만 기반한 경관유형화는 경관을 평면적 대상으로 접근할 우려가 있다. 경관관리 및 계획에서는 도시경관자원, 도시경관형성요소, 경관 인지 및 해석의 주체인 도시민의 시각행위에 의해 다양한 경관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경관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및 특성이 반영된 경관유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토대로 한 도시의 경관적 특성 및 경관요소를 반영한 세분화된 경관유형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경관유형화의 전제는 지역적 경관 특성을 반영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관유형 분류기준의 형식화 된 이용보다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경관유형 분류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세분화 된 경관유형별로 경관법에서 활용가능한 적절한 경관관리 방법¹⁴⁾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관관리 대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경관유형 분류체계와 기준을 용도지역지구제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표 10. 용도지역지구제와 도시경관유형의 개념적 관계

용도지역지구		기존 도시경관계획의 경관유형
주거지역		주거지경관
상업지역		상업업무지경관
공업지역		공업지경관
녹지지역		녹지경관, 산지경관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녹지경관, 산지경관, 구릉지경관
	수변경관지구	수변경관, 하천경관
	시가지경관지구	도로축경관, 조망축경관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도시축경관, 조망축경관
	역사문화미관지구	역사문화경관
	일반미관지구	도로축경관, 가로경관
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조망축경관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역사문화경관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활용 가능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은 크게 경관구성의 1차적 기준(내부적 요인)과 2차적(외부적 요인)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외부의 기준은 경관관리를 위한 규제 대상지역과 직접적 연관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현 단계에서 경관유형 분류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객관적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향후 관련 연구에서 풀어야 할 부분으로 남겨 놓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경관유형 분류의 1차적(내부적) 기준은 우선 토지이용방식(용도지역지구제), 지형, 경관자원의 성격, 경관요소를 들 수 있다. 도시경관이 건축물, 도로 등 인공적인 요소가 도시의 자연적인 지형 위에 입지하여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인공적인 요소들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 그 형태가 형성되며,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기본요소로서 그 변화에 따라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관자원의 성격이나 경관구성에 영향을 끼치는 광고물, 가로시설물, 야간조명, 색채와 같은 경관요소도 내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경관유형 분류의 2차적(외부적) 기준은 경관계획 대상지 외부에서 경관을 구성하는 조망점, 조망점과 경관자원과의 거리, 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을 기존 도시경관계획상의 경관유형과 연계하면 표 1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도시경관유형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도시경관을 유형화하는 방식은 1차적(내부적)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경관유형을 분류하고, 다시 그 경관유형을 2차적(외부적) 기준에 의해 세분화하는 방식이나 상업지역도로축경관, 주거지역조망경관과 같이 1차적 기준과 2차적 기준의 조합에 의한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경관계획이나 도시경관사업이 최근 들어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경관계획의 대상을 규정한다는 차원에서 도

시경관 유형화의 방법론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 방법론의 구성 차원에서 볼 때 도시경관 유형화를 위한 분류기준의 이용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도시경관의 복잡함, 다기능적이고 동태적인 특성과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분석과 평가 지향의 경관 유형화에서 경관계획 및 관리 차원의 경관 유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의 경관을 만들어진 경관이 아니라 계획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고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규정이 필요하다. 경관계획과 관리의 핵심은 대상, 규모, 시간대의 설정과 방법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도시경관계획의 대상과 규모의 구체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경관 유형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의 기초자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경관을 유형화하는 방식은 경관의 의미 고찰 및 해석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경관을 유형화하는 방식, 경관분석 및 평가의 관점에서 경관을 유형화하는 방식, 경관관리 및 계획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류하는 방식 등이 있다. 우리나라 경관유형분류의 경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과 평가 관점의 경관유형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들의 분석을 통해 경관을 유형화하는 방식과 토지이용이나 공간유형에 기반하여 경관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경관의 특성을 도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관특성과 유형의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관특성에 기반한 경관유형의 분류기준은 토지이용, 지형, 시각적 특성, 조망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경관의 특성을 인공적인 요소가 도시의 자연적인 지형 위에 입지하여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공적인 요소들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제도에 의해 그 형태가 형성되며 그 변화에 따라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 분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일관된 경관유형 분류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분석과 평가관점의 경관유형과 계획을 위한 경관유형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한 경관유형의 혼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경관유형과 경관권역이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어 경관관리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제어요소와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경관관리의 법적 수단의 국토계획법과 경관법의 실행 수단을 활

표 11. 도시경관유형 분류기준

도시경관유형 분류기준		기존 도시경관계획상의 경관유형
경관계획 대상지의 1차적 기준 (내부적)	토지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주거지역경관, 녹지지역경관, 상업지역경관, 공업지역경관
	지형(표고, 경사 등)	평지경관, 구릉지경관, 산지경관
	경관자원의 성격 (위치 및 형태)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경관요소	야간경관, 색채경관, 옥외광고물경관
경관계획 대상지의 2차적 기준 (외부적)	조망점	조망경관
	조망점과 경관자원과의 거리	
	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	축경관(도로축경관, 가로경관)

용할 수 있는 경관유형화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분류기준의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 도시의 용도지역지구제에 기반하면서 도시경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관유형 분류체계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세분화된 경관유형별로 경관법에서 활용 가능한 적절한 경관관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관관리 대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활용 가능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은 크게 경관구성의 1차적(내부적) 기준과 2차적(외부적)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적 기준은 지형과 용도지역지구, 경관자원의 성격, 토지이용에 의해 구성되는 광고물, 가로시설물, 야간조명, 색채와 같은 경관요소가 있고, 2차적 기준은 경관계획 대상지 외부에서 경관을 구성하는 조망점, 조망점과 경관대상과의 거리, 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경관유형화를 통한 도시경관관리는 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며, 향후 도시경관유형을 토대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토지이용과 경관을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과 경관을 동시에 고려하는 도시계획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경관계획의 방향도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토지이용제도의 변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와 경관계획의 과정에 필요한 경관자원, 조망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 1. Antrop, M. (2006:193)은 경관의 지속가능성 확보차원에서 경관관리의 대상, 규모, 시간대의 설정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관 변화의 모니터링과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주 2. 경관의 시각적 특성에 따라 파노라마적 경관, 지형경관, 위요경관, 초점경관(Vista), 관계경관, 세부경관, 일시적 경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 주 3. 정태일과 오덕성(2003), 김용수와 박찬용(2006), 최유리 등(2007)의 연구에서 광역도를 제외하고 시, 군의 경관유형을 재정리하였고 서울시(2005), 화성시(2005), 인천경제자유구역청(2005) 경관계획의 경관유형을 추가 분석하였다.
- 주 4. 일부 경관계획(울산시 등)에서는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인공경관의 구분 체계를 사용하기도 한다.
- 주 5. 하천경관의 경우, 자연경관의 하천경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축경관의 하천축경관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경관으로 통일하였다.
- 주 6. 송도지구의 경관유형은 점, 선, 면으로 구분하여 점적인 조망경관, 선적인 가로경관, 면적인 권역별 경관으로 경관유형화.
- 주 7. 대전시의 경우, 시가지경관을 기존시가지, 신시가지, 공동주택경관을 구분, 화성시의 경우 시가지경관을 신시가지, 주요 시가지구역, 시가지예정구역, 공업지역, 진입부경관으로 구분.
- 주 8. 청주시 주거지경관은 저층주거지, 고층주거지, 신시가지경관으로 세분
- 주 9. 서울시의 경관유형은 경관분석을 하기 위한 경관유형이며,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경관관리범위, 경관권역, 경관지구를 설정하고 있음.
- 주 10. 제12조 광역도시계획에 경관에 관한 사항, 제19조 도시기본계획에 경

- 관에 관한 사항, 제37조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지침 참고.
- 주 11. 시도조례에 의해 각 시도별로 결정할 수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도가 이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 12. 정순오와 한표환(1996)의 연구에서는 조망점이 불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공원, 광장과 같이 그 자체의 개발이 공공적으로 보호되는 안정적인 조망점도 있지만 이러한 조망점 역시 조망대상과의 중간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층개발에 의해, 조망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도로, 하천 등 조망점근로나 조망시야 또한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한 조망점으로서의 지위변동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조망점에서의 조망상황을 토대로 한 고도규제는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도 못한 방법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망점 선정의 기준과 경향에 대해서는 방재성 등(2008)의 연구를 참조할 것.
- 주 13. 이의 근거는 경관법 시행령 제3조 1항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과 시행령 제4조 1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 주 14. 대한주택공사 등(2006)에서는 경관유형별 경관관리방안으로 계획에 의한 관리, 지역지구 지정에 의한 관리, 심의에 의한 관리, 개발사업과 관련된 경관관리, 지원, 유도에 의한 경관관리, 개별시설물과 관련된 경관관리로 구분하고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를 경관유형화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계획에 의한 관리와 지역지구 지정에 의한 관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인용문헌

1. 건설교통부(2004) 신도시 경관계획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
2. 김대현, 김대수, 주신하, 오세래(2005) 도시의 토지이용형태별 경관특성과 유형. 한국조경학회지 33(4): 1-10.
3. 김용성, 이희정(2005) 외국 용도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제도개선방향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97-108.
4. 김용수, 박찬용(2006) 도시경관계획을 위한 지표의 연구경향과 유형. 국토계획 41(5): 117-129.
5. 김한배(2003) 도시경관계획의 작성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국토계획 38(5): 213-230.
6. 대한주택공사,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2006) 경관법 제정을 위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7. 방재성, 송병화, 양병이(2008) 조망점의 선정기준과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6(1): 70-79.
8.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3)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I.
9.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II.
10. 서울특별시(2005)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11. 서주환, 윤재남(1999) GIS와 군집분석을 이용한 경관자원 평가와 관리. 한국조경학회지 27(3): 88-97.
12. 유제형, 박상필, 김기호(2005) 서울 강북 도심부 경관유형별 특성과 학습 영향매체의 관계.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34.
13. 이규목(2004) 한국의 도시경관. 열화당.
14. 이형복, 임윤택, 사토세이지(2004) 서울시 도시경관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3): 247-259.
15. 인천경제자유구역청(200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경관기본계획.
16. 임승민(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7. 임승민, 안동만(1996) 제주도 중산간지역 현황조사.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
18. 임승민, 서정희, 박항춘, 정윤희(2007) 경관유형 분류지표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3(1): 41-50.
19. 정순오, 한표환(1996) 도시경관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

- 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8(3): 17-34.
20. 정태일, 오덕성(2003) 우리나라 경관관련 법, 제도 및 계획 속에 나타난 경관유형과 제어요소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19(10): 111-120.
 21. 최봉문, 이재준, 백운수, 구자훈, 강병수, 심상욱, 정태일(2002) 경관우수지역 보전 및 관리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지 240: 3-14.
 22. 최유리, 변연수, 황재훈(2007) 도시위계별 경관 유형과 제어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4-163.
 23. 한갑수(2003) GIS와 원격탐사를 이용한 경관유형의 특성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6(3): 117-128.
 24. 홍승길, 서명철, 정필균, 손연규, 박광래, 강기경(2006) GIS기법을 이용한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에 따른 경관유형분석. 한국토양비료학회지 39(1): 1-7.
 25. 화성시(2005) 화성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26. 황기원(1984) 문화경관론에 의한 도시경관의 해석이론 및 기법. 환경논총 15: 94-107.
 27. 황기원(1989)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1(3): 135-140.
 28. 황재훈(2003) 청주시 경관유형별 특성 및 평가연구.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22(2): 281-294.
 29. Antrop, M.(2006) Sustainable landscape: Cotradiction, fiction or utopia?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5(3-4): 187-197.
 30. Arthur, L. M., T. C. Daniel, R. S. Boster(1977) Scenic assessment: an overview.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4: 109-129.
 31. Barbyn, L. K.(1996) Landscape classification using GIS and national digital database. Landscape Research 21(3): 277-300.
 32. T. C. Daniel, and J. Vining(1983)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Landscape Quality In Altman I., Wohlwill, J. F., Behavior and the Natural Environment, New York: Plenum Press: 39-84.
 33. Meinig, D. W., *et al*(1979)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N.Y: Oxford University Press.
 34. Norberg-Shulz, C.(1980) Genius Loci: Towards a Phenomology of Architecture, London: Academy Editions.
 35. Swanwick, C. (2002) Landscape character assesment: Department of landscape university of sheffield and landuse consultations.
 36. Zube, E. H., J. L. Sell, and J. Taylor(1982) Landscape perception: Research, application, and theor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9: 1-33.

원 고 접 수 일: 2009년 3월 31일
 심 사 일: 2009년 5월 4일(1차)
 2009년 5월 19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09년 5월 21일
 4 인 의 명 심 사 필